

수도권 수해 피해 교회 구호에 나선다

한교연 임원회, 매일 국회사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 갖기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8월 18일(목) 제11-3차 임원회를 열고 수도권에 내린 폭우로 수해를 당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임원회는 수도권에 집중된 폭우로 주로 상가 지하층 등 저지대에 위치한 교회들의 피해가 컸다는 회원교단의 보고에 따라 회원교단 연합회장을 보내 심사위원 구원환 등에 동행해 줄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 매일 첫 주국회에서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를 장려하기로 했으며, 다음날 조찬기도회는 9월1일 오전 7시 CCM



발령에서 갖기로 했다. 국가를 위한 조찬기도회는 특별위원회인 소공동위원회(위원장 정성용)가 주관한다.

임원회는 또 백석 실천신학대학원(원장

양병희) 목사님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목회자 계속 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총무부장으로 11년간 근무한 노은희 목사를 총무부장으로 승진 발표했다.

예수교대한감리회 60주년 기념대회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 성대히 개최, ‘하나님께 영광’



1962년 ‘한국자유감리교회’로 시작된 예수교대한감리회(총회장 김희영 목사, 이하 예감)가 교단 창립 6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로운 도약의 큰 결실을 내다냈다.

예감총회는 16일 서울 한강중앙교회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자’를 주제로 아메 (사)예

수교대한감리회 창립 60주년 기념대회 예배를 드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짐을 할 것을 다짐했다.

대회를 주관한 최영철 감독은 “교단 창립 60주년 기념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되고, 우리 모두가 축제의 자리가 되어서

교단이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협력하고 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60주년 기념대회는 1부 예배와 2부 축하, 3부 찬양 페스티벌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사모하게는 기쁨이 되는 축제로 드러났다.

이날식 목사(사무국장)의 인도로 드려진 예배는 최영철 감독의 대회선언으로 시작하여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요 진, 신, 미, 영의 그릇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내용의 교리적 선언을 압축해 낭독했다.

최종규 목사(한강중앙교회)의 기도, 김태희 목사(중주감리교회)의 성경봉독, 호산나 찬양의 찬양, 최영철 감독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교회가 사명 직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제77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양경섭 목사)는 지난 8월 11일(목) 여전도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철 목사)와 사단법인 세계기독교연합회(총회장 김경원 목사)의 기금교단 연합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에 감사드리고 발자취인 사명감정을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계기독교단 대표회장 양경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예장아시안교회 대표 박지원 목사의 대주(도)에 이어예장기원교회총회 총무 하용준 목사의 성경봉독, 개혁신당대의 찬양과 예장통합총회 김병설 목사의 색소폰연주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사세계교회연합회 총회장 김경원 목사는 7월51 말씀을 본문으로 유대의 백성들은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구촌의 국가들이 흥할 때는 반드시 흥하게 되는 원인이 있거니와 패망하는 곳에도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총회장 김경원 목사는 7월51 말씀을 본문으로 유대의 백성들은 왜 어려움을 겪을까요?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지구촌의 국가들이 흥할 때는 반드시 흥하게 되는 원인이 있거니와 패망하는 곳에도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

야 살 길이 있다. 이 시대 성도와 교회는 지금 궁극적 차원에서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무기 중의 하나가 된다.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소망은 교회에 있음을 알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과 함께하신다. 면서 다시 한 번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농축산기술협, 한기총에 GG염 기부

“세계복음화에 KAT와 협력하는 계기 되길 기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는 한국농축산기술협회(회장 홍규표, 이하 KAT)로부터 GG염(God-Given Salt, 스프리트 및 알소) 5000세트를 기부받았다고 지난 8월 17일(수) 밝혔다.

KAT에서 기부한 GG염은 GG이오텍(회장 윤두규)에서 생산한 것으로, 전일염을 140도 고온으로 구워 불순물이 없는 천연미네랄 건강 소금 제품으로 알려졌다. GG이오텍은 장애인 직업 재능을 위한 농축산 기술 양성과 훈련을 통해 농작자

리 창출과 취업촉진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지립과 복리 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판매 수익금 일부를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에 사용하고 있다.

KAT 홍규표 회장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선교활동에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사회복합화에 KAT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대표회장은 “선교 활동을 위한 사업을 진행함에 경제적 지원과 봉사활동들을 연계하여 세계복합화에 KAT와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기총은 이날 KAT와 GG이오텍에 감사장을 수여했으며, 기부 받은 GG염 세트는 한기총 소속 교단과 교회들 중심으로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8.15광복절기념 밥사랑 광복떡 나눔잔치’

월드뷰티핸즈 · 해돋는마을, 독거어르신들께 온정 나눠

구로구별강NGO (사)월드뷰티핸즈(회장 이은지) 교수, 신한대 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손지은 떡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는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한일 목사, 신생면사무소)은 제77주년 8.15광복절기념 밥사랑 광복떡 나눔잔치를 지난 17일 갖고, 폭염과 독거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사랑의 도시락과 밥사랑대행식을 전했다.

이날 잔치에는 월드뷰티핸즈 독거어르신들께 신한대학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손지은 떡을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는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한일 목사, 신생면사무소)은 제77주년 8.15광복절기념 밥사랑 광복떡 나눔잔치를 지난 17일 갖고, 폭염과 독거어르신 및 거동이 불편한 독거어르신 분들에게는 찾아가는 사랑의 도시락과 밥사랑대행식을 전했다.



양사들도 참석해 독거어르신들을 섬겼다.

이날 (사)월드뷰티핸즈 회장 최하은씨 교수, 구로 전로, 장한일 사무총장(월드뷰티핸즈), 최세진 사무국장(해돋는 마을), 최세진 영

점 만은 나의 손지은 떡 나눠부처 만들기 틀비슷한 뷰티 등 소셜서비스를 통해 사랑을 나누며 어르신들이 삶에 용기를 갖고 사시길 기도”고 말했다.

몽골 기독교 복음화를 10% 달성 위해 힘모으기로

세기총, 몽골복음주의협회와 총력 기울인다



(사)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신하서 목사, 사무총장 신명수 목사)는 몽골복음주의협회(회장 알탄차지 목사, 이하 협회)와 선교사역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월 3일 오전 11시 몽골복음주의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업무협약식에서 양기관은 몽골 기독교 복음화를 10% 목표를 위

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몽골기독교총연합회(법인)회장 김동근(교회 이사장)의 주례로 진행되어 내빈으로 세기총 공동회장 장수원 목사의 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각 보유한

고 있는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세계선교의 사명 수행과 교회의 책임을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서로의 사역에 적극 협력하고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최대한의 협력을 위해 각 기관의 후원과 발전을 위한 사업 협력에 동의하고, 선교사역을 위한 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하고, 현지 방문 등 선교전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회장 알탄차지 목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식을 위해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한다. 오늘 각사의 자립을 만들어주시는 몽골 김동근 장로님께 감사드리다”면서 “기독교 역사 20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20년의 몽골교회와 오늘 협약을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 복음주의 협회 신장에는 개교 100년의 교회가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교회를 이 복음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성총회, 탄자니아 선교지서 목사안수

“인구 99.9%가 무슬림인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길 기도”

예수교대한감리교회(총회장 신하서 목사, 이하 예감)가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해 탄자니아 랩바 및 잔지바르에서 아프리카지역 선교사들과 선교사역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선교사역을 위한 교류 및 프로그램 개발하고, 현지 방문 등 선교전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회장 알탄차지 목사는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식을 위해 한국에서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한다. 오늘 각사의 자립을 만들어주시는 몽골 김동근 장로님께 감사드리다”면서 “기독교 역사 200년의 한국, 기독교 역사 20년의 몽골교회와 오늘 협약을 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 복음주의 협회 신장에는 개교 100년의 교회가 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몽골교회를 이 복음과 사역을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아프리카 지역행정장자 탄자니아 랩바를 감동한 선교사의 사역자와 인근 지역에서 사역중인 안수형 선교사의 사역을 방문해 복음기술교과와 경찰청에서 임당 헌반식을 가졌다.

또한 복음교회와 안수집사 가정의 헌신으로 간추린 CDP선교선도도 방문하여 임당 예배를 드리고 헌반식을 가졌다.

이날 8월 24일에는 선교사 이름 가정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선교사대회와 목사안수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선교사대회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 명의 방문된 가정들의 간증과 선교사들의 선교보고를 들으며 사역을 재무장했다. 이어 마차와 낚시 4일 오전에는 안수형, 문헌식 선교사에게 목사안수식을 거행함으로써 임당을 마쳤다.

간중중 총무는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위해 후원한 복음교회와 복음교회에 감사드리다. 선교사대회에 참석하신 아프리카지역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리다”며 “방문 기간 중 처음부터 준비하고 섬겨주신 김동근 선교사님과 감동심 사모님, 대원도 사역 제자들의 봉사, 기가대체 해외봉사 중인 한동대 배서진 재래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모두가 더욱 더 주님 나라 세우는 일에 힘쓰자”고 말했다.



“예배하며 성경말씀을 배우는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이들의 여름 천국잔치...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열려

교회학교 아동 부서의 여름성경학교가 지난 7월 16일(토) 안양성전을 시작으로 각 성전에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각 부서별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열렸다.

올해 여름성경학교는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한
일부 성전과 부서 외에 대부분의 성전에서 3년 만에

교회당에서 개최되었다.

많은 교사들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헌신 봉사하고 학부모들이 자리를 함께한 가운데 열린 여름 성경학교에서 교회학교 어린이들은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고 소리 높여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을 만끽했다.



체험활동 코스 프로그램 등 주제를 따라 준비한 다양한 순서를 통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을 깊이 깨닫게 된 어린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녀담게, 은혜와 진리의 어린아담게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함써 전도하는 생활을 하기로 결단했다.



말씀충만 은혜충만, 기쁨과 감사 충만...중·고등부 여름수련회

온라인으로 개최하던 수련회
3년 만에 은혜와진리동산 전원성전에서 열려

교회학교 중·고등부의 여름수련회가 지난 7월 29일(금)과 30일(토) 이틀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고후 2:15)라는 주제로 전원성전에서 열렸다.

코로나 전염병 팬데믹으로 인해 GNTC-TV 채널 등 온라인을 활용한 수련회에 참가하다가 3년 만에 전월성전에 모인 많은 학생과 교사들은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여러 순서에 적극 참여하여 믿음과 신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이런 수련회는 1970년대 19김영 애방을 위해 숙박은 전원성전 대신 각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회 등의 주요 순서는 바울성전 대신 대성전에서, 때 끼니 식사는 단체 배식 대신 교회에서 제공한 도시락으로 개인별 식사를 하는 등 박역에 만전을 기하며 진행되었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는 30일(토) 오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주제 특강시간을 통해 말씀을 전했다.

“크리스천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성공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는 것과 천국시민이 되는 것일

니다. 이러한 성공의 기반이 없으면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과 함께 그 모든 성공이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되고 맙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밝은 모습으로 열정적이고
 고집과 공격적인 태도로 행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
 고 그럴 수 있겠는가?’ 하고 누가 물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또 사할 만하고 선전을 행하여 내가
 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
 분이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복음의 향기입
 니다. 그런 아내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
 람에게 또 사회의 복음 전파를 전신신시요. 이
 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는 일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에 이어서 조용목 목사는 학생들이 지혜롭고 건강하며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믿음이 확고부동하도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도록 축복하고 교사와 교역자들의 헌신을 치하하며 격려했다.

예배와 성령충만기도회, 주제별 기도회, 그룹특강 I·II, '여리고성 vs 아이성 너의 선택은?', 가나안 정탐 I·II 등의 다양한 순서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



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더 굳세어진 믿음을 갖게 된
학생들은 한미음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반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향기를 발하여 주님

교사들은 이번 중고등부 학생들의 경진훈련을 해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당회장 조용

목사와 교회에 감사하고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 더욱 헌신 봉사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순복음복된교회 침례식 가져

광주지방회



계곡에서 거행했다.

2022년도 상반기 37명의 결산자중 1차 4명 2차 7명이 참여를 받았다. 코로나19의 팬데믹과 무더위로 인하여 전도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영혼구원에 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환경의 악조건들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91명에게 전도하여 37명의 결산자중 21명이 참여를 받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

했었고, 2차 때는 많은 비가 내린다는 기상청
의 예보가 있었지만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했
는데, 하루나꺼서 청명한 초가을의 날씨를
선물해 주었다. 이번 한라식은 오랜 기쁨으
로 인하여 계곡에 물이 없어한 달여 동안 침
래장소를 찾아 해바는 수도도 있었지만, 큰
쾌히 장소를 제공해주신 남경삼기도원집
성 원장의 배려에 감사하며, 이제는 교외의
정도군이 내 취재자 작문과 김영순 권사 그

교새 신자 전도대원, 안복남, 김종우, 오영환 성도와 수고한 민경술 협동목사에게 감사드리다고 전했다. 또, 우리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린다.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80번길 8
순복음복된교회 최장식 목사
010-7608-3967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illegibl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한국교회 일부 지도자 배교행위 척결 온전한 복음 증거 다짐

8·15 광복절 77주년 국가기도회,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 장로회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이하 예장총연)는 8.15 광복절 77주년을 맞아 지난 8월 15일(월) 오전 11시 마포구 월드컵로(4)에 장총연 법원회관에서 국가기도회 및 특강을 갖고 한국교회 일부 잘못된 지도자들이 WCC와 로마 가톨릭과 결합하여 한국교회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 변질시킨 패악을 회개할 것과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와 한일관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한국교회에 깨어 일어나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안영삼 목사의 사회로, 총무 지명식 목사의 기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도에 이어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가 "너른 복음은 없나니"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이광용 목사는 갈 1:6-11 말씀을 본문으로 "너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복음을 알았으면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고 내 할례에 복음을 깨어 맞추라는 노력을 중언하야 하며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라는 것은 다른 복음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제 내기 위해, 삼가기를 지시하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이 것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대로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WCC와 신앙적체를 일치시킨 협의의 회개를 촉구했다. 특별기도 시간에 감정선 목사(여운원)가 국가와 통일과 국가안보를 위하여, 권혁은 목사(합동보수 총회장)가 '대통령과 정세지도자를 위하여', 홍희가 목사(고신개혁 총회장)가 '사회와 경제의 발전과 코로나 극복을 위하여', 서정진 목사(합동보수 총무)가 'WCC와 이단의 패방을 위하여', 오선미 목사(삼일회장)가 '한국교회 발전과 개혁과 성령충만을 위하여', 하석수 목사(삼일회장)가 '예장총연의 기도운동과 부흥 발전을 위하여'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특별히 이날 기도회에서는 안영삼 목사(상

임회장)가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를 록강을 펼쳤다. 본 주제는 예장총연이 무너진 한국교회의 회복과 강화를 목표로 수년째 펼치고 있는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이다.

안영삼 목사는 "일제 치하의 어둠 속에서 선교사들이 전한 온전한 복음은 피폐한 민중들에 비춰진 유일한 빛이자 희망이었다. 조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복음이 전해 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며 "광복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증거한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특강 후 지도위원 김준총 목사의 헌aldi 후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와 일부 지도자들의 배교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이 땅에 온전한 복음이 증거 될 수 있도록 예장총연 산하 모든 교단과 교회가 총력을 기울여 나감 것을 당부하고 한국교회의 대요격성과 회개를 촉구했다.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연합회 제77주년 8.15 특별국가기도회 및 특강

이이 김영복 목사는 77주년 8·15 결의문을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했으며 이광기회장 사회자의 인도로 만세삼창, 송헌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예장총연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기도할 것과 극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국론분열을 회개하고 협력으로 풀어나갈 것을 강조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 대한민국에 불법 침략자임을 밝히며

위원장, 강제노동 등 극한 만행을 저질렀음을 주지하며, 즉각 회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예장총연은 한국교회 근교교단 최대 연합체로서, 매년 삼일절, 6.25 광복절 등의 국가기념일에 맞춰 대대적인 국가기도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와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 시작된 한국교회부활절 연합예배를 매년 개최하며, 연합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생명의 말씀

정인철 목사 // 대구경북지방회 상임선교회 담임

오순절은 구약에는 칠칠절, 초실절, 맥추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출 23:16, 34:22, 28:29) 이는 처음 수확한 밀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제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출 34:22에 의하면 칠칠절은 밀의 첫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감사하는 추수 감사절이었습니다. 그후 레오 유대교에서는 오순절을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한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 성령강림은 출 28-32의 예언 성취로 파악하므로 '예언과 성취'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오순절 성령강림은 율법 시대와 공로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징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약인들이 오순절을 모세가 시내 산에서 첫 언약인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했습니다. 그대신 이러한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함으로써 예수가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오순절 성령강림은 첫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안의의 전환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렘 31:33-33) 렘 36:26-28 "또 세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 내가 너희 조상들이 저 준약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둘째, 오순절 성령강림은 마 16:16-18의 '번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예수의

예언이 실현됨으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으로서의 교회 탄생하고 시작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구약교회와 신약교회를 구분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구약교회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기준으로 하였다면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의 신약교회는 지파와 인종이 경계화되면서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셋째,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이나 지리적 구분 그리고 남녀의 성별을 넘어 보편적으로 증거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이 율법적 이스라엘로 제한되었다면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적 지리적 성별의 구분을 넘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었습니다. (행 2:16-18)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 하 나니이 말씀하시기를 땅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여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리고 내가 내 영을 내 남자와 여자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여언할 것이요"

본문은 이러한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인해 율법으로 정죄 당하던 죄인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행 4:16, 22) 이 사건을 33년 'Gemein on, sign'이라고 합니다. '표'는 단속하기 적(minde)의 구원을 넘어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받은표'인 자가 일 어선 사건"은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율법 시대 가 종결되고 은혜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온과 금'에 대조되는 개념으로서 참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됨을 보여줍니다. (행 10:13) 이 사건은 구약이신자 신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마 24:35-36)입니다.

본문은 하듯 성령을 받았다는 안 될 중요한 건물로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되며, 하나님께 사귀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상생활과 종교 생활의 중심입니다. 모세의 성막은 1년에 걸쳐 건축하고 해마다의 성전은 7년과 10년마다 재건축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재건한 스룹바벨의 예루살렘 성전(제2성전)은 제성전에 비하면 규모도 작았고 불모였었으며 성전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성문

들은 불타버렸을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BC 538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사마리아인들이 강력한 반대로 14년간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용기 있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의 권고로 다시 건축이 시작되어 BC 520년에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의 제성전보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이라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면서 좌절하며 다짐했었습니다.

스 3:12-13 "제사장들과 위위 사람들과 종장들 중에 여러 노인이 첫 성전을 보았던 고로 이제 이 전 지대 돌을 보고 다짐했었다 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13 백사자의 부근에 있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듣거니와 소리는 화와 불과 함께는 소리를 배설들이 분간지 못하였나니"

예수 당시의 성전은 하듯 성전으로 가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무려 46년 이 걸쳐 건축하였을 것입니다. (눅 21:5, 9:22) 하듯 성전을 본 자는 누구나 감히 잊지 않을 수 있었으리라(13:1)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극찬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탄' (美門, the Beautiful Gate)은 이방인의 등에서 여인의들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문 출입문으로 금과 청동 장식

물의 정교함이 아름답기 이를 데 없이 불려진 별장입니다.

그대신 유대인들은 병든 지와 여인 그리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자로 간주하고 이러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듯 성전은 이방인들로 여인과 들, 아스파렐의 들, 제사장의 들로 엄격하게 구분되었습니다. 율법은 육체에 힘이 있는 자가 성전에서 제사드리는 것을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레 21:16-21)

더구나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병든 자'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주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여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요 9:1-2)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을 불러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누구로냐 하고 가로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냐고 가로되 너희가 그 부모도 아니냐' 유대인들은 질병을 죄의 결과로 보았으나(산 28:20-28, 시 38:3-4) 그러므로 나쁜 서 않은행이 된 자는 율법에 의하여 정죄당한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마 9:1-6에서 예수가 중풍병자에게 하신 '네 사람의 산만'은 병의 원인이 사귀었음을 뜻하며, 유대인들은 잘못하게 생각한 것은 어떤 죄로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런 율법으로 화해한 성전이라도 나쁜 서 않은행이 된 자에게는 그들의 역

에 불과하고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으리다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출입하는 자들에게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신 태평천 그곳을 지나가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원하자 베드로가 "온과 금은 내게 없사옵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시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요"라하고 명령하며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나사렛 앉은뱅이 된 자'가 뛰여 서서 절하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감기도 하고 구둣바도 하리니 복음을 전하하였나니. 이는 율법에 의하여 죄인으로 폭로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사망과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으로 오셔서 삼가기에 달려 호소하셨고 사비와 율법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기에 누구든지 그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 다(행 3:19) 또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성령 받게 하시고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 하여 주시나니.

그대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닫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후 13:5-6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러운 자라나 6 우리가 버러운 자 되리 너희를 시험할 때에 너희가 버려지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리"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 1)매농성물질
- 1)순정된 신채조식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생법)
- 3)그라대학교 승용석 교수님 임명으로 세계특허)
- 2)물리보노이드
- 1)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염매방 원장대연구논문)
- 3)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강염에 탁월(경희대연구논문)
- 4)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고)
- 3)박사물리: 타형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 (전북대연구논문)
- 4)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연구논문)
- 5)사모니: 면역력 증가
- 6)갈살수: 홍화씨의 2배, 멸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 (호서대연구논문)

- *천년초를 복용하면 배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 7)식이섬유: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식품(호서대연구논문)
-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개선
- 8)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량으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 9)비타민C: 알로에보다 2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로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년초화학연구소 발표)

- 10)기타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증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종괴,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 10)기타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을 연구를 통해 발표됨.
- 11)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 *간, 폐, 위, 기증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있음
-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 *유방종괴,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찢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전북대연구논문)

3면에서 이어짐

이슬만 대통령은 미 군정기에 도입된 형벌·검목·군복 제도, 성탄절 공휴일 제도 등을 그대로 유지했고, 주요 국가의 법률이 기독교식으로 제정되거나 개정되도록 하였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설립과 이어 등장했던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기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기독교, 특히 개신교적 이념이 반영되는 현상은 다양한 방면에서 꾸준히 그 형태를 볼 수 있다.

이슬만 대통령은 땅을 합법적으로 구입해서 합법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기증 수 있게 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했다. 아이러니하게 양반들의 지지로 대토벌이 된 이승만은 지주제도 없애는 농지개혁을 단행, 토지를 소작인에게 돌려주는 토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기반을 만들어 6.25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자기 땅을 지키는 용력이 되었다.

한 목사는 기독교의 주도와 건국 참여와 함께 기독교의 정치·문화적 개혁운동을 동시에 강조함으로써 해방 이전, 즉 한반도에서 기독교를 수용했던 1세대가 가졌던 진보·보수의 양대 패색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양상을 보여주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현에 기여했다. 한 목사에게 있어 민주주의라는 것은 반드시 기독교적 문화라는 밑거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본 바, 당대의 선진 제국 곧 하버나 미국 등이 보로 기독교 문화에서 꽃을 핀 민주주의 국가들이며 예컨대라고 주장했다.

당시 그의 '기독교 건국론'에서 민족의식과 신앙의 외연화는 해방과 건국에 있어 기독교적 민족의식의 표현이었다. 그의 영향력이 남한인구 1/4에 해당하는 개신교 주류 세력이 끼친 영향을 감안하면, 당시 한국 기독교의 민족의식이란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한 목사의 '기독교 건국론'은 진보와 보수간 균형을 이루는 수용적 결과물이었다.

하지만 '기독교의 건국론'이 해방 당시에는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사회 대입이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비판적 접근과 경향을 띠고 기독교에 안주하게 되고, 특히 정부 수립 후 보국, 안보, 사회 안정이라는 흐름에 따라가다 새로운 비전 제시가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은 참으로 아쉬운 점이다. 이러한 처음 행적은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보수성으로 기울었고 특히 그의 투철한 반공의식과 사회안정 추구 의향은 소극적 정치참여 형태로 나타났다.

한 목사의 자질과 신앙의 외연 확대
한 목사 자신의 생애에서 행장의 과업으로 꿈꾸

던 '기독교적 건국'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생각에 잠길 수 있는 상황은 그리 오래가지 않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맞게 되었으니, 그것은 첫째로 6·25전쟁의 발발이고 둘째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로 인해 스캔들로 이어진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한 목사의 기독교 건국론이 당면한 사람은 이승만 정권의 실패에도 직결된다.

세로 건국론 국가에서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질서에 대한 존중 등의 핵심 가치를 주창하였고 그 가치를 공유하는 우의 진영의 민주인사, 특히 기독교 인사들의 정부 요청 참여를 반기지 않았던 현실에서 정치권력이 강화되는 외중에 그에게 개성하는 사이에 신자들이 행령하고 또한 그로 인해 4.19혁명으로 정권 자체가 붕괴되는 엄청난 충격적 결과를 가져온 사상에 자못 큰 실망을 느꼈지 못하였다.

한 목사의 '기독교 입국론'은 미처 꽃을 피우지 못하고 깊은 병으로 상처를 입고 좌절해 버린 형국이 되었다. 이는 정교분리와 독학자적 정제에 입각하여 복음화운동에 매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후 한 목사는 70년대에 들어서며 주요 관심은 해방전후 영혼구원의 불길을 달린 민족복음화와 회심과 성인으로 이룬 한국교회연합운동, 더 나아가 민족 통일에 대한 아젠다(agenda)로 방향을 돌렸다.

한 목사의 민족복음화 혹은 한국민족에게 복음을 전해 기독교 정신을 확산하고 전통시대 격을 한 민주주의의 국가를 세우고자 한 것인 동시에 교회 부흥의 새장을 열었다. 아울러 있는 한국교회들을 하나로 묶으며 보수와 진보의 목소리를 내게 한 것도 그의 탁월한 리더십이 끼친 영향이었다.

한 목사의 삶은 대한민국의 근대사만큼이나 회로적으로 정밀하다. 그러나 분명 한 것은 저서 '기독교의 건국론'을 통하여 한 목사의 신앙, 철학, 그리고 삶의 주제는 그의 주변인들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성과 그 전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으로 남겨졌다는 점이다.

공산화를 막고 오늘의 자유대한민국 탄생과정에서 있어서 한목사의 '기독교적 건국'이라는 기독교 세계관과 실천적 삶이라는 발자취 위에 그것의 실천이라는 빛을 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분열된 여러파(파)들(Ecclesial) 정신을 다시 회복해 새로운 연합운동을 전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장대하고도 아름다운 생명나눔의 기록”

생명나눔의 가치 로즈디데이 특별 사진전 영상으로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지난 6월 18일(목), 본부 유튜브 채널 '다들거야 TV'를 통해 로즈디데이 특별 사진전 (장미하)의 후기 영상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로즈디데이(Rose Day)란 매년 5월 14일 고귀한 생명나눔을 결심해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한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이하, 도네패밀리)의 사랑을 기약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본부가 지정한 도네패밀리 기념일이다.

올해로 2주년을 맞는 로즈디데이를 기념하며 본부는 국내 최초로 도네패밀리와 이를 통해 희생을 얻은 이신인의 일상을 담은 특별 사진전 (장미하)을 진행했다.

장미하라는 '장대하고도 아름다운'다는 뜻으로, 장대하고도 아름다운 도네패밀리의 사랑과 생명의 가치를 오래도록 기억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5월 11일부터 6월 16일 서울시 종로구 갤러리마에르에서 진행된 이번 사진전은 도네패밀리와 아픈 이의 예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와 후원자, 일반 시민들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지난 6월 11일 열린 사진전 오픈 기념식 현장과 뇌사 장기기증인 유기족들의 일상이 담긴 사진과 사연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장미하에 모인 도네패밀리와 장기기증인들



매년 5월 14일은 #로즈디데이 장기기증인과 도네패밀리를 기억하는

은 기증인이 남기고 간 생명나눔의 유산을 함께 기억하며 깊은 감동을 나누었다.

한편, (장미하)의 소중한 기록은 김대원, 문영주 PD(촬영), 김도희 PD(편집), 박별암 PD(촬영), 배우 김원진 씨(내레이션)의 재능나눔으로 완성됐다. 본부 등록자이자 일반인 나눔자극자로 참여한 배우 김원진 씨는 “그 누구보다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돌려보내는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해

주신 도네패밀리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생명의 꽃을 피운 기증인과 도네패밀리의 장대하고도 아름다운 기록을 영상으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생명나눔으로 세상에 희생을 전한 도네패밀리의 숭고한 사랑을 더 많은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문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종철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종철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공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종철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국회의원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청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청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울림길로 82-9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전도자의 길, 사명자의 길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사명자는 영적 파수꾼—
영적 부사관, 선두 주자라,
24시간 켜켜이 인내하며 가는 길

비록 그 길이 험악하여
많은 아가적울지라도
예수영광 위하여
나의 자존심 무렵에 댈는 길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내아가가 죽는 길
사탄, 연단, 고초 통과해야 하는 길
주님 영광을 위하여 묵묵히 가는 길
어떠한 상황도 이단한 한계도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길
감사로 감사로 승리하는 길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사수하는 길

형제의 연합함
아직 그리 아름다운고
한국교회 위하여 서로 하나되어
아니!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세,
한자의 노고를 다하는

한국교회 선전들의 그 기도에 합하여
이시대의 주의 종들이여
회개와 사의
회개와 사의!

겸손히 언도하여 무릎 꿇을다.
함주소! 능역주소!
아름답게 가리도 가리도이다
로망들이 커지는 곳이라도 가리도이다.
안일한 곳이라도 가리도이다.
오늘도 사명위해 사명자로서
이 사명 다하기까지 감당하리,
전도의 사명 주님주신 은혜로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오늘도 내일로 달려간다.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전도의 사명 위하여
마스크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는 계속 달려간다.
주님영광 위하여
감사함으로 감당하리!

가족세전도 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 대표총재

문화선교회/방송대표 박영수 목사

평·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1691, 0108730-2573



마음으로 생김 같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2)

정직한 역사가들은 '기독교 없이 자유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말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합니다. 또 한 기독교 없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라는 말을 합니다. 이러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는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헌일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는 한국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 한일합병조약으로 국권 피탈된 조선은 일제의 통치를 시작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대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런 환경 가운데서,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는 무너진 조선의 주체적 정신을 다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조선 총독들의 식민정책 핵심은 기독교의 근절이었습니다.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예와 일본 귀신을 섬기는 신사참배를 통한 내선 일체화 정책으로 독립운동의 거점인 기독교를 해체하려는 것이 식민통치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1919년 31운동에 앞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은 절반이 넘는 16명이었으며, 함께 제헌을 받았던 48명 중에는 22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전주교회는 기독교보다 100년 전에 신앙이 전파되어 성도 수가 가장 많았지만 단 한 명도 없었고, 불교인은 불과 2명이었습니다.

개항기부터 31만세운동 625년경 등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선도했던 사상의 선교사들의 활약상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건너온 기독교 선교사들은 당시 유교적으로 폐쇄된 한국의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접촉점으로 교육과 의료선교부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은 625년경 당시 구한말로부터 정전협약까지 다방면으로 활약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자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피신했지만 일부 선교사들은 한국 땅을 지키며 한국 정부를 대신해 학교와 병원, 고아원 등을 세우고 정전협상에서 통역자로 활동했습니다.

현재 국내 손꼽히는 병원으로 인정받는 세브란

스병원도 전신인 재중원은 조선 말기 1886년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시설입니다. 교수진은 모두 선교사들이었으며 예쁜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신인 이화학당(스칼렛선교사), 연세대학교 전신인 경신학교(앤더우드선교사), 배재대학교(이영철) 등 그 외 인프라 시설이 전무했던 우리나라에 기독교는 수많은 의료, 교육, 고아원 등의 자선사업을 통해 한국의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선교사들의 역할 중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은 한글 보급입니다. 1444년 세종대왕이 한글을 제정하고 반포한 이후 400년이 넘었지만 전국민의 90%가 문맹자였던 때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한글 문법책을 만들고(최초의 문법책) 언더우드 선교사(전남) 교회에서 이학당을 개설하여 한글교육을 시행했습니다.

사설

나라를 진정 위하는 길

조선의 항우(項羽)와 한나라의 유방(劉邦)이 벌인 한 전쟁이 마치지 즈음에 전쟁의 판세는 항우에게 매우 불리해졌다. 나라를 안락하게 한 약속을 버리고 유방은 항우의 뒤를 쫓았다. 항우의 군사는 해하(海下)에서 성벽을 쌓은 다음 골짜기로 들어갔다. 군량도 거의 바닥이었고 병력도 반으로 줄었다.

한나라 군사는 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그런데 밤이 되자 사방에서 조선의 도끼가 들렸다. 항우는 크게 당황하면서 하는 말이 '한나라의 군사들이 이미 조선의 성벽을 잘라놓았는가? 조선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많은가?' 라고 탄식했다.

사실은 한나라에 항복한 조선 병사들에게 조선의 노래를 부르게 해 항우의 정신을 잃게 하려는 책이었다.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사면초가라는 말이다. 주변에는 온통 적군뿐이어서 고삐 삼타에 빠진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국회의 전국위원회 51명이 참석해서 전성 43명 반대 46명으로 국회의 개정안을 의결하고 5선 조영의원을 비대위법정도로 선출했다. 이로 인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14개월 만에 자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당 안팎의 만류를 단호히 뿌리치고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용이든 승리라고 기각하면 실패하는 것일까? 인용이나 기각이나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 미래는 판관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누가 따라줄까? 막판에는 자기 당 대령까지도 사정없이 공격했는데, 전지분간 모르는 철부지가 총을 가지고 난사하는 장면처럼 여겨진다.

인타잡고 가다가 이번에는 이준석 카운터고하는 박민영(23세) 국회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문대원실 5급 행정관으로 발탁되어 갔다. 성경은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누구나 똑같이 죽고 넘어지는 낙향 인간인 현실을 깨우쳐주고 그러므로 권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 공평하게 처리하라고 명령하신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여 악인의 낯 보기를 얻었거니 하느님 나서는 사람의 죽음이 고로 그의 눈이 밝아져 리로다"(사 62:27)

1년 전에는 전국에서도 당성이 가능한(초) 우량주였지만 지금은 당선될 곳이 어디 한국에도 없다.

그는 결박한 지하구를 밟았다. 정지하는 사람은 지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다. 본래 이기고 사함을 얻는다는 단순한 얘기도 못 들었던 것 같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얘기다.

그동안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준석을 혐오하기 시작했다. 민주당보다 이제는 이준석이 더 믿을 아라는 말까지 나왔다. 정치의 뒷배와 별책은 복잡한 것 같아도 아주 간단하다. 자기가 몸담은 쪽의 지지율에 자신의 개입을 더하는 것이 뒷배 정치다. 그래야 정치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밟고, 행동조심 겸손이 철저한 것 이다. 그러나 이준석에게서는 겸손이라기엔 밟고 밟고 동 조심을 발견할 수가 없다. 목사의 독을 머금은 듯 인간 열악하면 독을 뿌려낸다. 이준석이 몸 담은 곳이 30%가 넘는 보수다. 자기에게다가 자신의 개입은 2030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목사의 독과 하이에나 의 물이 들어가는 밟기에 모두가 질려 버린 것이다.

그는 몸담은 지지층을 견어했다. 2030도 정단할 수 없는 일이다. 많으면 국회의 청문회 43명일 김태도 청문대원인 박민영도 현 정권의 성공을 바라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현 정권의 몰락을 바라라는 얘기를 누가에게 바치려고 그러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제 희망이 없는 것일까? 국민들은 각자 해답을 가지고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타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서는 국민들에게 복자를 주신다고 우회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신다. 나라를 맡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라를 진정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잠전 2:17)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고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1-2) 인간이란 도와를 사람이 없으면 사면초가인 것이다. 전성하유이독존(天下無難事) 같다. 하여 기(氣)를 들은 이방인에게 단상(丹心)으로 응답한 정몽주처럼 독(獨)청(靑)靑(靑)하리라 보다.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여쭙겠니?

진리의 사랑님 오시니

옛것을 옮겨주고 내려놓지 못하는

부끄러운 내 모습 저 푸른 푸른 보이며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겉사람과 속사람의 치열한 싸움

마리엔만 머물고 있는 믿음을

가슴으로 밀어내시며

여쭙겠니? 하고 물으십니다.

사랑 할 수 있겠니? 현실 하겠니?

용서 할 수 있겠니? 도전 하겠니?

인내 할 수 있겠니? 물질 드러겠니?

오늘 아침에 현실이 되어

진하게 내 마음을 흔드십니다.



침례에 매 주신 말씀으로
떨림 하고 화평한 마음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조 문 : 정책위원장 조영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 ~ 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 5

● 본보는 신문을과량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ls.org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수교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령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교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턴쉽으로 고교를 수강하여 이학정학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앙성)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 의식이 있는 자 3. 신학교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	2년 4학기	1. 4.3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과에 이입하는 다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가 1종)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4) 주일학교 수료증(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사용지 2매 이내)
- ⑥ 편입생만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12678-5181

2. 제출서류(가 1종)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일학교 수료증(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사용지 2매 이내)
- ⑥ 편입생만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1737-04-00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 5
- (해당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 부여
- ② 등록금 환급을 원할 경우 가능
- ③ 7년 상환 사정은 교육부령에 의거하여 가능합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12678-5181 e-mail : ucls5181@naver.com

홈페이지 : www.ucls.org

2022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회자임을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에 아름다운 감을 불어넣는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 소

- * 설립총장, 성령총장.
- * 총장, 총무.
- * 새 생애 사역에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 문의처 : 0212678-5181 FAX:02-2632-0691
-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 5
- (영등포구 51-30-3)
-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02)7205
- * 홈페이지 : www.ucls.org,
- e-mail : ucl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 명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ini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과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과 졸업자(간접)

2. 전형 방법

*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 일정

* 원서 접수 : 수시

4. 전형료

* 전형료 : 30,000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1737-04-00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5. 제출서류

-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 타 신학교 수료증 1부
- * 주일학교 수료증(3개월 이내 발급) 1부
- * 기독교복음화사역연구원 입학원서 1부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자 등에게 목회학 석사(Minister of Ministry/간접)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로서 종사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졸업자는 복음화사역연구원 입학원서 제출 시 교단 신학교에서 목회자 지위를 부여하며 복음화사역연구원 입학원서 제출 시 교단 신학교에서 목회자 지위를 부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 문의(02)7205-5181,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12678-5181